

사회복지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김 성 이*

- I. 서론
- II. 사회복지 연구기반의 취약성
- III. 청소년 복지 연구의 문제점
- IV. 청소년 복지의 실제 문제들
- V. 결론

I. 서론

청소년 복지 문제는 이미 1950년 6·25사변 이후부터 각계각층의 관심을 집중해온 문제이다. 1990년 청소년현장이 제정된 지금에 와서야 청소년 복지정책과 연구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마땅히 지금까지의 현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과제를 정리해야 할 때이다.

1950년대 이후 격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가 뒤얽혀 변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는 타성에 젖어 급변하는 사회와는 유리된 채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운영되어 오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치계에서는 “신사고”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과학계에서의 “파라다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

파라다임이란 애초에 과학사를 연구한 Thomas S. Kuhn의 주장에서 기원한다. 사고의 발달은 기존의 지식이 축적되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되는데 일반 연구자들은 이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연구하게 됨으로써 사회발전의 한계를 갖게 된다. 이때 어느 한 순간의 급격한 사고의 변화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사고를 출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큰 혁명적 단계라 일컬었다.

바로 지금이 이러한 혁명적 시각에서 청소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복지연구를 새로 정리할 때이다. 그럼 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어비스 전반에 걸친 사회복지학계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II. 사회복지 연구기반의 취약성

현재 청소년 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서어비스에 관련되어 우리들이 느끼는 복지의식의 위기는 단순히 제도가 미약하고 재정이 튼튼치 못해서 야기된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런 위기의식은 우리들이 제공하는 서어비스들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 취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반의 취약성은 첫째, 청소년 복지 서어비스는 어떤 가치기반에 의한 것이었나? 둘째, 어떤 지식기반에 의해 실시되었는가? 셋째, 청소년 서어비스 기술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에 기여했는가와 질문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어비스는 가치 지식 그리고 기술로 구성된 실천활동이므로 이 세가지 면에서 먼저 우리들 사고의 취약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1. 가치적 측면

사회복지 서어비스는 관례적으로 정의, 공평, 인간존엄성, 인도주의, 개인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를 포함한다. 이런 관례적 가치를 크게 인간주의로 묶을 수 있다고 Vigilante는 말하고 있다.

Vigilante를 비롯한 많은 사회복지 연구가들은 사회복지 서어비스를 인간주의 추구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주의는 보편성, 자율성, 협동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보편성이라 함은 인간사의 모든 갈등은 풀에 뜬 거품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하나의 공통된 인간적 감정의 공감대 즉 연민, 박애, 자아실현의 욕구, 선의 등의 공유되는 속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인간주의는 보편성을 갖는다. 이 보편적 태도는 자기결정권이란 사회복지 서어비스의 자율성 원칙을 형성한다.

자기결정권이란 서어비스 집행자가 목적을 결정하지 않고 수혜자로 하여금 스스로 각자의 가치와 목적을 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보편주의적 특성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인간간의 협력을 사회관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 서어비스의 실체에 있어서 이 인간주의 정신에서 나오는 보편성 자율성 협력성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사회복지 서어비스의 연구는 가장 엄격하고 과학적 규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사회복지 서어비스의 가치인 인간주의는 이상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선반에 올려놓고 유리된 연구태도를 지너오지는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

사회복지 서어비스에 있어서 가치와 연구를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형태는 인간주의 가치문제를 무한한 탐구의 대상영역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말하자면 사회복지 서어비스에서 가치는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고 그것은 단지 철학적 관심의 독립된 영역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사회복지 서어비스 연구의 첫째의 잘못이 있다.

2. 지식적 측면

사회과학에 있어서 지식은 일반적으로 “왜”에 대한 지식 *knowledge for why* 과 “어떻게”에 대한 지식 *knowledge for how* 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전자는 사회현상 이해를 돕는 지식이고 후자는 변화지향적인 지식이다. 사회복지 서어비스에 있어서는 전자는 사회 및 인간문제의 이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장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다. 그리고 후자는 서어비스 실천의 직접적인 테크놀로지적인 지식이다.

지식의 성질상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왜”에 관한 지식보다 “어떻게”에 관한 지식이 실천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지적 관습은 “왜”에 관한 지식체제에 얽매어 있었다. 즉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뒤 거기에서 제안된 정책적 제언에 의해 행위를 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 “직선적 관계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 지식에서 실천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선형으로 지식의 발달을 생각해왔다.

이러한 지적 관습은 객관적 지식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리로서 존재한다는 논리 실증주의의 기본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른바 상황 초월적 지식 *context-free knowledge* 존재에 대한 가정으로 순수한 과학적 결과는 보편 타당성을 가짐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지식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객관적 진리형태로 상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식과 행위간의 이분법을 초래한다. 다시 말해 지식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위한 연구는 사회에서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같은 지식의 “선형적 개념”은 학계등의 “지식집단 *people of knowledge*”과 서어비스 실무의 “행위집단 *active group*”간의 간격을 형성시켰으며 심지어 상호간의 불신의 벽을 쌓기

도 했다. 즉 지식집단에서는 실무자들의 연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해 편기현상이 심하다고 하며,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해왔으며 실무자들은 학계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지식은 이론적이며 추상적이어서 실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몰아부치게 되었다.

이 결과 사회복지의 실무에 있어서 지식의 감소를 가져와 지식의 누적은 어렵게 되었다. 요약한다면 know-why가 know-how보다 우위라는 생각과 know-why로 부터 know-how가 나온다는 “위계열적 고정관념”은 지식인 집단과 행동집단간의 협조적 관계, 대등적 지식교환관계(지식인 집단은 know-why를 행동집단은 know-how를 각각 개발하여 협동적으로 지식을 발전시키는 관계)의 형성을 저지, 저해해왔다. 이제 어떻게 하면 상황적 지식을 발전시킬 것인가 고심할 때이다.

3. 기술적 측면

사회복지 서어비스는 실천을 강조하므로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술이란 작업적 능력이나 도구적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술은 지식을 실천형태로 옮겨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이란 “방법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 것으로 know-how의 지식으로 나온다. 그런데 know-how 지식의 결여는 자연 기술의 발달을 저해해 왔다.

know-how의 지식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조사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개발 연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분석, 개발, 평가, 유도, 채택의 5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경험적인 종합을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충실히 실행됨으로써 know-how지식이

증가하고 이 지식에 기초해서 기술은 증가하게 된다.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 분야에 있어서 survey 중심의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만을 제공하였을 뿐 조사개발 연구 같은 종합적 실용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집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알맞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기술부족은 우리 실무자들에게 자신감의 결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가치, 지식, 기술면에서의 반성은 청소년 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의 연구에서 반성해야 할 점이다. 이상의 시각을 기초로 청소년 복지 연구에서는 어떤 점을 반성해야 하는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I. 청소년 복지 연구의 문제점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 복지 연구가 아직 정상과학으로서의 파라다임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T. Kuhn은 과학의 발달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의 주장을 전개하지 못하는 단계를 과학 이전의 단계라 보고 이런 상태가 지나 위기상황이 온뒤 정상과학이 형성되며 이 정상과학이 새로운 위기를 만나 또 다른 정상과학으로 되는 단계를 통해서 학문의 발전단계를 논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의 연구의 현위치는 정상과학의 위기상황이 아니라 과학 이전 단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상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을 보는 파라다임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 파라다임

형성이 청소년 복지 분야에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청소년 복지는 사회복지의 하나로서 마땅히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파라다임을 추구해야 한다.

복지 *welfare* 라는 단어는 “well”과 “fare”의 복합명사로써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책적 의미에서 잘 지낸다는 함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이며 이는 인간주의의 바탕위에 두어야 한다.

인간주의란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와 권위 인간의 창조력, 인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신조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의미의 인간주의 사상은 위에서 지적한 인간의 속성을 억누르거나 짓밟으려 할 때 의문을 느끼고 과감히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정신이어서 그것은 개개인의 행복을 주도할 권리 자유와 평등과 정의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는 행동주의적 신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구의 휴머니즘의 발달은 개인주의 사상의 확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을 불사하는 행동철학을 낳아 급기야는 서구사회의 전통적 기반을 완전히 뒤엎는 프랑스의 민주정치 혁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 특성은 서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의 기반이 되며 그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개개인의 권위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의 청소년 복지 연구가들은 휴머니즘의 본질보다는 휴머니즘이 가져온 과학정

신에 더 엄매임으로써 연구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위주의 사회복지 서어비스 방법론의 도입은 청소년 복지를 물량적이고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만들어 청소년 자체의 인간성과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경시하는 연구 풍토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내적 가치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사회사업 개입의 결과나 투자의 효과만을 평가하는 연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과 인간주의간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점이다. 즉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근대과학의 발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스 고전에 대한 관심은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히포크라테스 등의 고전 물리학자와 의사들이 발견해낸 수학적 원리나 그들의 자연관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가져왔고 그 결과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등의 자연과학자들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자연을 이해하는 데에는 실험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머니즘과 과학의 발달은 물론 초기에는 같은 사상에서 출발하였다. 즉 휴머니즘과 과학은 똑같이 중세의 기독교의 횡포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사명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자연에 대한 관심과 실험적 방법에 대한 의존은 휴머니즘과의 거리를 가져왔다. 과학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기술의 발전은 도시화와 산업화를 가져옴으로써 합리적 관리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기계에 의한 인간관리라는 비인간화 현상을 낳게되었다.

따라서 과학의 발전은 인간주의의 약화를 가

져왔고 중국에는 과학과 인간주의간의 결렬을 가져왔다는 것을 청소년복지 연구자들은 심각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질적 분석방법의 발달에 청소년 복지 연구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인간주의보다 과학을 우위로 보는 관점은 인과관계적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의 문제로 보게한다. 이는 모든 자연현상이 인과관계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하여 모든 결과는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과 연결된다. 이러한 인과관계적 결정론은 모든 자연현상이 인간의 행위와는 전연 무관하며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과학주의 사상의 발달은 휴머니즘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즉 이 우주의 주체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와 봉건체제에 도전해서 겨우 생취한 인간주체의식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자연현상이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관계없이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인간은 오로지 이러한 객관적 현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객체로 봄으로써 과학은 인간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과학은 인간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스트들의 정체의식에 손상을 입힌 것이다.

인간행위가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때 휴머니스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은 독자성을 잃게되어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분석의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의 형이상학적 넉센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모든 인간의 행위는 동물의 동작에 환원된다는 홉스의 견해와도 일치하며 이는 오늘날의 심리학의 행동주의 이론과도 연

결된다. 인간연구에 대한 자연과학 방법론의 적용은 인간의 주체의식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더구나 이같이 사회과학이 내포하고 있는 반(反)휴머니즘적인 성격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즉 과학적 방법론과 그것에 따른 지식과 이론이 인간행위의 설명에 적용될 때 인간은 정치적 조작과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 전쟁이후에 우리나라의 사회는 혼란과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속에서 개인의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복지보다는 집단전체의 이익과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적 사회복지 경향을 띄고 발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당시는 물론 오늘날의 청소년 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남아있다. 청소년 개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체집단의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주의적 보수주의는 진정한 청소년 복지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보수주의 입장을 기능주의적 입장으로 전수되어 오늘날의 사회복지학의 체계이론속에 살아 남아있다. 사회체계이론이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계에서도 환영받고 있다는 것은 사회집단주의 안정추구 정신이 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과학주의가 청소년 복지에 더욱 심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연현상의 연구에 적용되는 이론과 방법이 인간행위의 영역에 적용하는데 있다. 이 세계의 주체인 인간은 과학적 조사의 객체로 변질되고 인간행위는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연구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실증주의자들은 가치중립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휴머니스트에 의하면

가치중립성이란 윤리적 허무주의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이같은 윤리적 중립성을 인간복지에 관한 과학자들의 무관심 내지 책임회피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이것은 과학에 의한 인간의 통제가능성을 무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근래의 청소년 복지 연구가들은 가치중립성에 얽매어 윤리적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윤리성의 문제는 조사방법론에서는 물론 사회사업 실천에서 누차 거론되어온 과제이다. 그러나 그 윤리성의 문제가 과학성에 역눌려 사회복지 연구과정의 주체로서 진행된 적도 없으며 그 윤리성의 실태나 그로인한 윤리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도 없다. 심지어 매년있는 학회에서나 사회복지 대회에서 거론된 바도 없다. 그리하여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도 윤리성의 문제는 관심밖의 일에 지나지 못했다.

넷째로 인간주의 입장에서 청소년 복지 연구의 문제점은 인간의 자유, 자율성, 권위에 대한 연구의 부재이다. 휴머니스트들이 과학문명에 대한 비판은 과학화에 따른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의 소외등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인간생활 전반에 관한 비판적 평가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평가로서 인간의 본질상실에 대한 비판이다. 그것은 인간의 복지를 위한 각종 제도 사업에 관한 연구가 인간의 자유 자율성 권위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청소년 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그들의 창조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기체 발생학의 대가였던 코힐 G. E. Coghil 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자신에 의해 창조적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인간행위를 외부의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나 그것의 결

과로 보는 결정론은 과학적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심리학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위는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보다는 인지적 입장에서 보려는 인지심리학 등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즉 인간의 인지과정은 불가항력적인 자극이나 외부의 힘에 무차별하게 반응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가지 자극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인지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과정에는 개인적인 동기, 즉 욕구나 가치 또는 목적등이 상당히 깊이 관여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정신분석학에서도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인정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사회복지계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과학주의와 낭만주의의 경계선에서 방황하던 프로이드를 잇는 융이나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기계주의적 객관적 접근에 반대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인간대 인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를 치유하려는 휴머니스트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신프로이드 학파중 프로롬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가능성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데서 찾았으며 이처럼 자아와 타아가 완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 즉 「생산적인 사랑」은 개인성의 완숙과 자아실현의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휴머니즘의 면모를 활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창조적 능력의 감퇴를 생산적인 사랑의 결핍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배 여론에 따라 청소년 복지

연구자들도 청소년들의 창조적 능력의 개선을 사회적 구조개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에 얽매어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복지가 하나의 정상과학으로서 자리잡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주의를 중심으로 연구방법을 개선하고 청소년을 주체로 윤리와 자율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다.

IV. 청소년 복지의 실제 문제들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서어비스의 실시상에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대상과 각 생활장별 및 행정기구와 관련시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사회복지학계에서의 청소년 복지는 아직까지 아동복지의 한 부분으로 종속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주로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한 구호적 성격을 띄었다. 그러나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전체아동에 대한 복지 사업의 욕구가 증대되자 아동복지법을 1982년 4월에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그 대상아동을 일반아동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아동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아동복지법의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 정의하여 사회통념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층을 모두 복지행정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복지는 단지 빈곤, 방치,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을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

의 제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전적인 제 활동들인 것이다.”(W.A.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1961)

Friedlander의 말과 같이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아동에서 전체아동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아동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실천활동을 아동복지라고 보게 된 것도 불과 8년 전의 일이다. 이 결과 아직 일반 아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복지서버비스체계가 설정되어 있지도 못하고 청소년 복지가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2. 시설

① 1988년 말 현재 25,901명의 요보호아동이 전국 27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보호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호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그것인데 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자료가 부족하다. 과거 시설보호가 중심이었을 때에도 시설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시설보호에서 거택보호로 정책이 전환된 후에도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실시계획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② 또한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만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퇴소를 대비한 직업보호 시설, 훈련종목 및 자립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상 만18세가 되면 시설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데서 시설퇴소아동들은 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설퇴소연장아동에게 취업알선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 사업을 1977년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퇴소시에는 지역사회인사들이 중심이 된 후원회를 조직하고 직장알선 등을 전개하나 이런 사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장적응, 직업교육, 사후지도 등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연구가 없다.

③ 그 밖에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입양사업부문으로 이들의 인간주의적 견지에서 효율적으로 입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등이 필요하다.

3. 가족

청소년에게 가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① 가족의 연구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연구되는 데 구조적 측면에서는 가족의 구성, 자녀의 수, 출생순위, 가족의 연령, 가족의 성별비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가정의 기능적 환경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성격, 양육태도,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구조, 가족구성원과 아동과의 정서적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보건사회부등의 복지담당실무진에서는 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가족유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비해서 학계 및 연구자들은 주로 기능적 측면에서 청소년 복지를 연구해왔다. 즉 서어비스 실무에서는 저소득가족, 걸손

가족(모자가족, 아동가족, 고령가족), 이주가족을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펴온데 비해서 학계에서는 가족과 청소년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즉 학계는 청소년의 위치와 인격형성등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실무자에게 필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이 가정내에서 충분한 의식주의 생활을 보호받고 있는지, 정부의 구호수준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준인지, 이러한 구호형태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연구는 적고, 중산층을 중심으로한 일반가정내에서의 아동과 가족원과의 인간관계에 중심을 둔 연구가 많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역시 심리학이나 사회학 또는 교육학계에서의 연구내용과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여 복지의 개념과는 무관한 연구가 많은 실정이다.

가설의 설정에서도 사회사업적 개입과도 거리가 있으며, 실증실험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어 인간주의적 접근에 소홀한 점이 엿보인다.

② 다음으로는 현실적 정책결정과의 관계미약도 지적되어야 한다.

한 예로 모자복지법이 1989년 4월에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사회복지 연구가의 참여도 미미했을 뿐아니라 이 법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사전에도 사후에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연구와 실무와는 큰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한 예라고 하겠다. 정책실무와 관련된 연구가 적다는 점은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문제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재가보호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및 직업훈련비 등 급여와 복지자금의 대여 및 고용의 촉진 등이 있

고, 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바,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의 비용과 보호수준 및 정책실시시 유의점등에 대한 실무에 도움을 주는 연구가 부족하여 외국의 예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서서비스가 주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무연구부족현상은 정책결정과 연구가 유리되는 문제를 낳았다. 즉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되어 아동복지시설 중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탁아시설을 추가하고 모자복지법의 모자복지시설과 중복되는 면을 삭제정리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입소시키도록 했으며 기존 새마을 유아원 250개소를 탁아소로 전환운영하는 등의 개편을 시도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과정은 사회복지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보건사회부가 학계와의 연대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학계는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현실감이 부족하여 제도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정책을 선도하는 실질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③ 그밖에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제공되는 소년가장세대 사업, 불우청소년 결연사업 등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어떤 보호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4. 학교

① 청소년이라 함은 일부 근로청소년, 무직 청소년, 비행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들로서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환

경은 가정에서 습득할 수 없었던 행동과 지식을 배우는 특수 환경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과 통제, 개인의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개인 및 사회발전의 전인격형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지식과 기술은 물론 바람직한 행동양식과 생활태도를 습득케 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이상의 각종 학습활동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원활히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복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① 학교급식서비스, ② 학교보건서비스, ③ 심신장애자 특별서비스, ④ 교육복지서비스, ⑤ 직업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특히 정서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① 정신의학적 서비스, ② 심리학적 서비스, ③ 출석장려 서비스 등을 학교 사회사업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학교사회사업과 같은 유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국 각 교육구청별로 자원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자원상담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도 매년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해야 될 사회복지학계의 노력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즉, 현재 “학교사회사업”의 교과목이 사회복지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대학원)도 적을 뿐 아니라, 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전무하다.

아울러 중·고교의 교도 교사제의 운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학교사회사업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② 학교의 청소년복지중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극렬한 입시제도에 의해서 집단지도 활동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종전에 사회단체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각종 서어클 운영이

되어왔으나 1970년대의 유신 이후에 집단활동이 규제를 받게되자 중·고등학교에서 서어클 활동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 결과 청소년들의 사회화의 좋은 경험의 장이 되었던 집단활동이 감소되어 집단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및 효과에 관한 연구가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사업 연구자들의 한계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다.

이후, 집단활동 프로그램 분석연구는 정신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치료에서만 명목을 유지하게 되었고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한 집단활동 연구는 소멸되었다. 더 나아가 그후에 정부주도하의 각종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이 전개되게 되었으나 이 역시 사회사업가들과는 무관하게 운영됨으로써 청소년 집단활동과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계와는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다.

③ “학교사회사업가”의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이 질적인 면에서 실증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학교에 전문적 청소년 복지가 강화될 수 있다.

5. 사회환경

① 사회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의식적이고 무의도적이지만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학교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는 사회환경의 정화 및 개선에는 물론 이 급변한 환경에 어떻게 청소년이 적응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한다. 먼저 환경정화 및 개선에 있어서 부실식품접객업소, 흥행업소, 만화가게, 오락실, 무허가 숙박업소, 어린이 공원, 아동회관, 공연장, 전시장, 야영장, 숙박 및

휴양시설, 아동체육관 등의 여가활동시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책가들의 입의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전문적 연구·조사결과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② 지역사회가 청소년에게 주는 문제의 심각성은 물리적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화때마다 종래의 전통과 문화의 혼재속에서 전통보수주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에 혼란이 있음은 물론 최근에 사회주의적 혁신 가치관이 덧붙여 3가지 문화가치의 혼란속에서 청소년들의 가치관형성에 장애를 주고 있다. 유교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가치관 중에서 청소년들이 받아들여야 할 점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들 가치관의 균형있는 조화형태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습득되어야 하는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문한 형편이다.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전래의 보호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규범적으로 청소년 복지를 보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회혁신적 입장에서 청소년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려는 연구가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왜 그 가치관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거나 실험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 형성이 청소년들의 창조성과 자율성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분명히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 이 결과 최근에 발생하는 각종 청소년들의 사회운동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과목으로는 “사회행동”프로그램의 강화 및 개설과 이 내용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나와야 할 것이다.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주, 영화, 과학실험, 전시시설 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청소년 전용시설의 의무를 복지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전용시설의 수가 적을 뿐아니라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대도시에 있는 시설에서도 단순하고 제한된 프로그램들만 제공되고 있어 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즉 청소년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프로그램 및 청소년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등이 지역사회내에서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간주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창조성, 자율성, 공동성의 입장에서 검토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④ 정부에서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단 발생한 경우에 사후지도까지 행하는 상담지도사업을 위하여 1990년 현재 시·도에 13개소를 비롯해서 전국의 53개소의 아동상담소를 두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 380명의 별정직 공무원인 아동복지 지도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는 그 지역사회의 유지들로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 5,255명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된지도 상당한 기간이 되었으나 여기에서 얻어진 지식이 누적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학계와의 연계가 약하여 지식과 경험의 환류작용이 미약한 실정에 있다. 지역사회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입상장이므로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지역사회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6. 관계부서 역할

원래 청소년 복지사업은 아동복지사업의 하나로서 출발되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요보호대상청소년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하여왔다. 청소년 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두고 청소년에 대한 대책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체육부로 청소년 사업이 이관되면서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각 부처와 협조하여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건사회부는 한정된 부분에서 청소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선도를 위한 시설청소년보호, 소년소녀가장지원을 하고 생활보호과에서 국민가정 청소년보호, 부녀복지과에서 경로효친행사지원, 위생제과·위생관리과에서 업종별 종사자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의 한정된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어 사법부나 체육부 문교부 등에 비해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청소년 복지 업무는 보건사회부의 본연의 업무이므로 타부처와 협조하여 청소년 복지 업무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학계와 연구소에서도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V. 결론

청소년 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학계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이다. 아동복지의 범주내에서 독립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 학문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초기 연구과정에 있는 청소년복지는 그 기본구조부터 생각해야 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모두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서 청소년복지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다. 청소년 복지의 기본적인 가치, 지식, 기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시켜야 한다.

둘째는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의 기본문제로서 연구방법의 개선, 인간주체정신회복, 윤리성확립, 그리고 자율성의 강화를 통한 창조적 청소년상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는 청소년의 연구대상의 재평가 및 시설, 가족, 학교, 사회환경 등의 장에서 청소년 복지를 위한 당면과제를 연구하는 일이고 이와 관련되어 관계부서의 역할이 설정되는 일이다.

이상의 과제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복지형성의 기본이 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이러한 모든 연구는 인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인간주의의 정신은 외국의 연구결과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사상과 의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건강하고 씩씩한 청소년을 만드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사회복지연수원(1990), “아동복지” 사회복지, 기본교재
 김동일, “과학적 방법론과 인도주의”, 현대사회 : 현대사회연구소
 김연희, “사회사업 전문직과 과학 패러다임”, 경남대학교 논문집 제14집

보건사회부(1989.3) '89주요업무자료, 보건사회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7), 사회복지문헌목록,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이윤구(1990), "청소년 현장", 한국청소년 연구 창간호
 Kuhn, T.,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ird J. & Hartman A. (1985) *A Handbook of Child Welfare*, The Free Press, New York
 Retin, M., L. Peattie(December 1981),

"Knowledge for Policy," *Social Service Review*
 Retin, M. & S. White(March 1981), "Knowledge for Prattice," *Social Service Review*
 Smith. R. & Manning P., (1982) *A Handbook of Social Sciences Methods* Vol. 2: Qualitative Methods (Cambridge, Mass: Ballinger)
 Vigilante, T., (Fall 1974) "Between Values and Sciences: Education for the Profession During a Moral Crisis Is Proof Truth?,"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Work*

<ABSTRACT>

The Trend of Researches and the Subjects on Adolescence in Social Welfare

Soung-Yee Kim

It is one of serious issues in social welfare to examine the trend of youth welfare research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studying areas.

The study of youth welfare as a science belongs to the child welfare and has not been well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rea. Therefore the status of youth welfare in Korea is in the pre-science stage.

In order to escape from the pre-science stage, the followings should be carried forward.

First, the paradigm of youth welfare should

be reestablished on the base of humanism. The basic value of youth welfare should be changed from hierarchical viewpoint to cooperative one between the knowledge group and the active group. The knowledge system which emphasized know-why should be replaced with know-how. The skill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method.

Secondly, there are many basic problems which have been treated wrong. Among these, the research methods which mainly depend on the survey should be emphasized on the quali-

tative studies.

The blind dependency on the political decision on the youth welfare policies should be freed. The ethical problems which are found in the services should be reexamined and considered deeply in practice area. To establish the ideal type of creative youth, the way of improving autonomy of youth should be researched.

Thirdly, the specific issues found in the many fields such as institutions,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should be reexamined as research topics immediately.

And also the administration systems of youth welfare polic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stablish cooperative links among these administrations.

The above issues should be researched continuously until the youth welfare is placed in science stage. But the crucial point is that all the researches and studies should be based on the humanism.

It is also important to utilize our Korean traditional thoughts and customs in the study of youth welfare for building the healthy and active Korean boys and girls.